

6 사람

“무전공 선발 제도 7월 초까지 초안 완성할 것”



지 서울 학무부총장은 무전공 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적 인프라를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이지수 기자)

김동희 기자 kdh0626@khu.ac.kr

지은림 신임 서울 학무부총장

지은림 서울 학무부총장이 지난 4월 임기를 시작했다. 내년부터 우리학교에서도 시행하는 ‘무전공 선발 제도 안착’이라는 중요 과제를 앞둔 지 학무부총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임기를 시작한 소감은

학무부총장을 맡고 자료를 분석하고 계획을 짜보는 중에 더 위기감을 느꼈다. 우리학교도 나름대로 계속 혁신하고 성과도 거뒀지만, 현재 국내외적으로 대학이 치열하게 변화하고 달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경희는 끊임없이 혁신 중’이라는 하나의 슬로건을 생각했다. 하나를 바꾸기 위해 바뀌어야 하는 다른 것이 정말 많다. 끊임없이 혁신하고 이를 정착시키려면 모든 걸 종합적으로 재디자인(redesign)해야 한다. 다만 혁신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수, 교직원, 학생 모두 한 마음으로 혁신에 동참한다면 정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최선을 다하겠다.

Q. 내년부터 시행될 ‘무전공 선발 제도’와 관련한 단과대별 합의는 이뤄진 상황인가

의료보건계열과 실기 위주의 예체능 전공은 무전공 제도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를 제외한 캠퍼스별 전체 모집 인원 정원 중 10%를 무전공 선발 제도로 모집하기로 확정했다. 그중 서울캠은 자율전공학부 학생이 여기에 포함된다. 모집 인원이 30명 미만인 소규모 학과는 최소한의 정원을 보장하는 원칙을 세워 보호할 예정이다. 또, 다전공생이 많은 학과는 모집 인원을 조금 더 많이 빼는 등 단과대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해 총 10%의 무전공 선발 정원으로 합의했다.

Q. 무전공 학생과 기존의 자율전공학부생의 차별점은

현행 자율전공학부는 자율전공학부라는 공간 안에서 학생이 전공을 선택하거나 자율 설계하는 상황이다. 무전공 제도는 이러한 벽을 모두 허무는 것이다. 학생도 더 다양한 전공을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됐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

자율전공학부생에게는 전공 선택 시 정보 부족이나 상담의 어려움이

“

무전공 학생에게 기초 소양을

쌓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대학과 국내외

사례는 분석을 마쳤고,

교수님들의 요구사항 내지는

우려하는 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

있었다. 무전공 제도는 규모가 훨씬 크기에 진로 탐색이나 전공 탐색에 대한 전문적 상담 체계를 갖추는 것이 관건이다. 자율전공학부 학생도 기존보다 더 체계적으로 전공을 탐색하고 이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전공학부의 취지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무전공 학생의 학교생활과 진로 설계를 도울 행정적 제도와 프로그램 설계에는 어떤 것이 있나

교육혁신연구위원회와 행정인프라위원회가 마련돼있다. 무전공 학생에게 기초 소양을 쌓기 위한 실험·실습실, 공간 및 지도·상담 교수 등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대학과 국내외 사례는 분석을 마쳤고, 단과대 간담회를 열어 교수님들의 요구사항 내지는 우려하는 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Q. 무전공 학생을 위한 강의실이나 공간 배정도 계획 중인지

공간은 여기저기서 찾아내 효율적으로 운영할 생각이다. 장기적으로는 공간 증축이나 신축 계획도 해야 한다. 최근 총장님과 단과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총장님도 공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다.

Q. 무전공 선발 제도 도입 이후 ‘광역모집’과 ‘마이크로디그리’의 향후 방향성은

지속할 예정이고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 학생이 여러 과목을 이수하고 이를 이용해 ‘마이크로디그리’로 활용할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만들자고 논의했다. 따라서 학생이 졸업 전까지 다전공을 이수할 수 있게 하거나, 최소한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계획할 것이다. 따라서 아직 폐지할 생각은 전혀 없다.

Q. 대학 혁신과 수업 혁신에 관한 견해는

현재 교육 패러다임은 보다 학생 중심적이다. 또한 학생들은 앞으로 첨단 기술 기반의 사회에서 살아갈 것이다. 따라서, 강의에서 한두 번 부분적으로 첨단 기자재를 이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대학 교육도 지금은 공정성이나 신뢰성과 같은 이유로 상대 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의 교육 패러다임은 학습자 중심, 개별 맞춤형 교육이다. 교육 방법이나 평가 제도는 개별 학생의 특성을 개발해 주고 장점을 키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또한, 중요한 핵심 역량 중 하나는 대인 관계다. 학생이 팀 프로젝트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이 모여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많이 해야 한다. 협력과 소통 역량은 세계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서 중요한 역량 중 하나다.

Q. 임기 내에 목표하는 사업이 있다면

교수님들을 지원하는 것 또한 학무부총장의 역할이고 책무다. 따라서 교수 대상으로 교수 업적 평가 제도, 인사 제도 등 여러 제도에 관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분석해 보고 싶다. 교수와 단과대 평판이 세계대학 평가의 교육 성과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계성, 관련성, 인과관계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분석에 의한 예측을 통해 교수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더 발전적이고 효과적으로 조형해 나가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 중 하나다.